

2024. 2. 13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13일 오전 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획경영처

기획경영처장	윤혜선	02-3410-9730
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경영혁신팀장	엄화진	02-3410-9811
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7쪽

관련 누리집	www.swr.or.kr
--------	---------------

서울물재생시설공단, 지역 상생·사회적 책임 다하는 기관으로 도약

- ESG경영 일환, 작년부터 다양한 사업 추진... 공단 본연 역할+사회적 책임 노력
- 분뇨운반차 운전자 피로도 개선을 위한 휴게공간, 분뇨처리 대기 순서 문자서비스도
- 환경공단 최초 친환경 캠페인 K-RE100 가입... 계약시 전자계약인지세 균등 부담
- 공단 “지역사회·약자에 관심 갖고 지속적 상생 방안 모색, 사회적 책임 다해나갈 것”

지난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(이사장 권완택)이 물재생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물 산업 분야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앞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.

서울물재생시설공단(이하 ‘공단’)은 지난해 지속가능한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▲분뇨처리차량 입차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▲K-RE100 동참 ▲계약인지세 균등 납부제 시행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.

<분뇨처리차량 운전자 위한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, 대기순서 문자(SMS) 서비스도>

- 먼저 공단은 주로 새벽녘에 이동하는 분뇨 운반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피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운반 차량 전용 주차장과 휴게공간을 조성하였다.
 - 공단에는 서울 각지에서 수거한 분뇨를 실은 운반 차량이 매일 300여대가 입차해 처리시설에 분뇨를 투입하고 있다. 차량 1대당 분뇨를 투입하는 시간이 15~20분 걸려 입차 순서대로 처리되다 보니 운전자들이 휴식할 공간이 필요했다.
 - 대개 운전자들은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날에도 좁은 차량 공간에 머무르며 진입과 대기 순번을 알지 못한 채 도로 위에서 기약 없이 투입 순서를 기다리는 일이 많았다.
- 분뇨 운반 차량 운전자를 위한 휴게공간(70 m^3) 내외부에는 냉·난방기, 흡연 공간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한 의자 등을 마련하여 휴식 중에도 대기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LED와 문자(SMS)를 통해 ‘차량 진입 및 대기 알림 서비스’를 제공 중이다.
 - 또한 어두운 밤에 분뇨 투입을 위해 바쁘게 오가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신호 경고등, 빛반사 경계석, 반사경 등도 설치했다.
- 지난해 휴게시설을 설치한 이후, 공단이 분뇨운반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('23.8.7.~8.23.)한 결과, 종합 평균 4.17점(5점 만점)을 얻었다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편·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차량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.

<2050년 기관 사용전력, 재생에너지 대체하는 운동 'K-RE100' 환경공단 최초 가입>

- 공단은 지난해 전국 환경공단(하수처리장) 최초로 한국형 친환경 캠페인 'K-RE100'에 가입, 지속가능한 기관 운영에도 적극 앞장 서고 있다.

- 'K-RE100'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%를 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'RE100'의 한국형 제도로, 「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.
 - 'K-RE100'은 전기 소비자(기업)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.
 - RE100은 영국 런던 소재 다국적 비영리기구 '더 클라이밋그룹'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, 정부 강제가 아닌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국제운동이다.

- 공단은 K-RE100에 자가발전 방법으로 참여, 본부 포함 소속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연간 약 1,539MWh/년(서남 물재생센터 1539.075kW, 탄천물재생센터 72.45kW)을 발전하여 온실가스 배출 865.84tCO₂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- 아울러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을 위한 친화시설 공원에 쉼터, 편의시설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활SOC(사회기반시설)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.

- 특히 ‘태양광 스마트벤치’는 낮에 발전한 태양광 전력을 활용해 야간에 LED조명으로 공원을 밝히고, 휴대전화 무선 급속충전 등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편의시설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<공단-계약상대자 간 ‘전자계약인지세’ 반씩 부담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운영>

- 또한 공단은 지난해부터 업체와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공단 간 ‘전자계약인지세’를 균등 부담하여 계약업체의 인지세 부담을 줄여주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- 「인지세법」에 따라 도급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당사자 및 상대자가 연대하여 기재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~최대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.

- 하지만 전자문서의 경우, 인지세 납부 주체와 비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계약상대방이 인지세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.

- 이러한 계약상대방이 주로 인지세를 부담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이 계약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.

-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“지역사회·약자와 동행은 작은 관심과 시도에서 시작되는 것”이라며 “공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,

주민 등 주변에 대한 적극적 관심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및 운영 여건을 꾸릴 수 있었던 만큼 올해도 공단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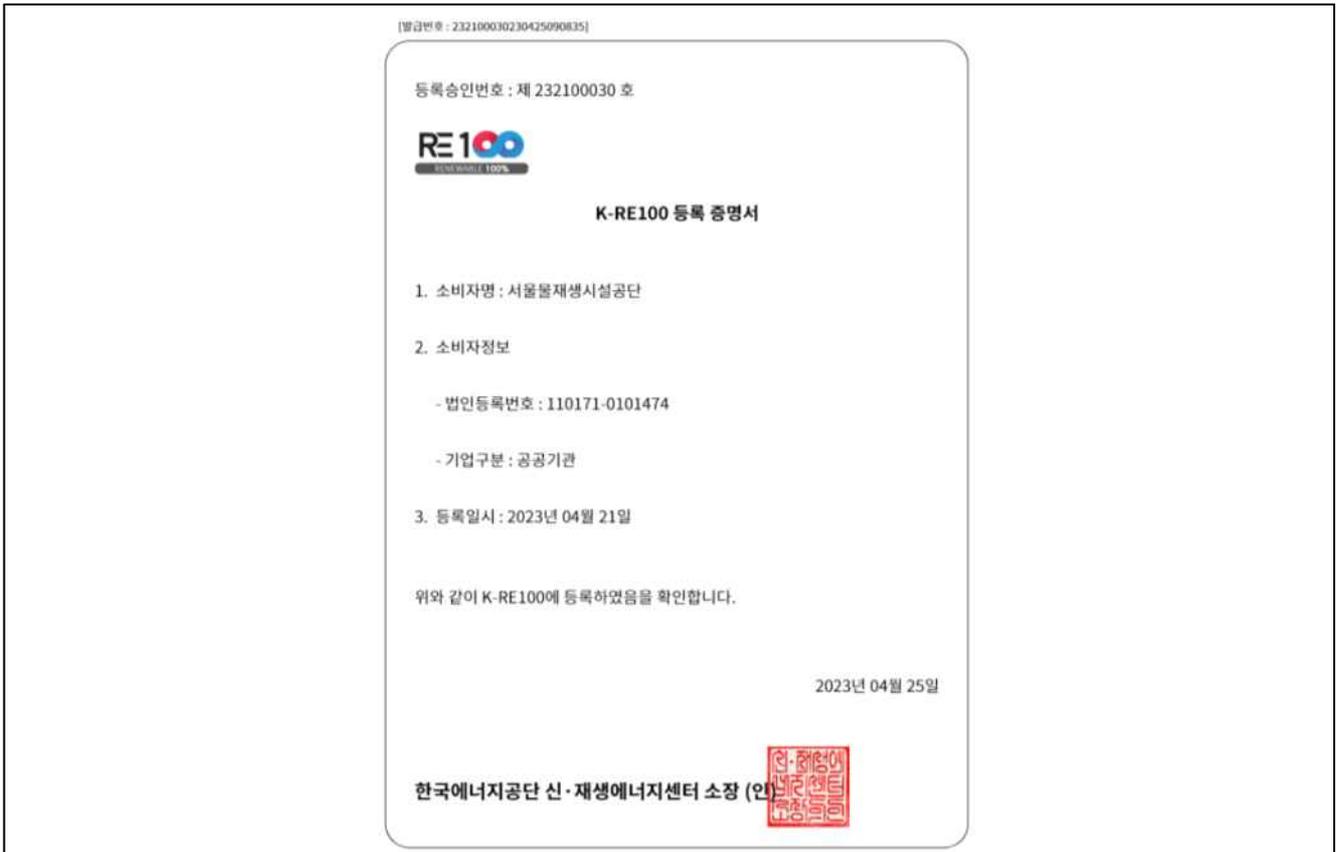
〈첨부1〉

관련 이미지

□ 분뇨처리시설 주차장 및 휴게공간

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분뇨처리시설 주차장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형 LED 전광판</p>
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흡연장 구비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휴게공간 조성</p>
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휴게공간 내부 소형 TV 알림창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계석 안전띠</p>
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반사경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차량 신호 경고등</p>

□ K-RE100 등록증명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미지



K-RE100 등록 증명서



<시설물 상부>

<건물 옥상>

<주차장>

태양광발전시스템



<생활SOC 주간사진>

<생활SOC 야간사진>

<핸드폰 고속무선충전 기능>

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역주민친화시설 생활 SOC